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이 양 숙*

목 차

1. 서 론	1.2 도서기호법의 변경유무
1.1 연구의 목적	1.3 도서기호법 변경후의 서가배열 및 기존장서정리
1.2 연구의 방법	4.1 도서기호법의 변경의사 유무
2. 도서기호법의 필요성과 역할	4.5 도서기호법 변경현황
3.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종류	5. 도서기호법에 관한 문제점
3.1 수입순 도서기호법	5.1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이유
3.2 저자명순 도서기호법	5.2 도서기호법을 변경하려는 이유
3.3 연대순 도서기호법	5.3 도서기호법의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
3.4 기타	5.4 도서기호법의 사용상의 문제점
4. 도서기호법의 사용 및 변경 현황	6. 결 론
4.1 도서기호법 사용현황	6.1 조사·분석 결과
	6.2 조사·분석의 결과에 대한 소견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문헌은 일정한 법칙하에서 순서대로 배열하면 쉽게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도서기호는 분류번호와 더불어 청구기호의 일부로 수입순, 저자명순, 연대순에 의한 기본기호와 서명, 판차, 권호, 복본표시 등의 부차적 기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일한 분류번호 아래서 각각의 도서를 개별화함으로써 도서의 서가상

*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접수일자 : 1995. 3. 9

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서가상에 배열을 용이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도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서기호법은 최종적으로 동일한 분류번호를 가지고 있는 도서를 각각 개별화하여 그들간의 우선적인 배열순서를 조정하려는 것이며(Ranganathan 1967, 503), 도서의 배가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므로써 서가상의 도서의 배열과 검색과 되찾음과 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리재철 1970, 3).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기호법은 1947년에 편찬된 박봉석의 「朝鮮十進分類表」의 권말에 수록된 「性別記號表」이며, 도서기호 특히 저자기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57년에 최초로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도서관학 연구가 시작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듬해인 1958년에 처음으로 도서기호만을 위한 리재철의 「동서 저자기호표 및 그 사용규정」(리재철 1958a)이 편찬되었으며, 그 이후 계속 연구발전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도입되거나 새로이 편찬된 것으로, 수입순 도서기호법, 저자명순 도서기호법, 연대순 도서기호법 등 10여종과 자관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제작한 도서기호법 10여종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자동화와 더불어 목록에서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하여 분담목록을 작성하려는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도서기호법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서기호법이 연구된지 30여년이 지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어떤 도서기호법들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현황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사용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질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전화면담을 하였다.

1.2.1 조사대상

한국도서관통계 1992년판을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 273개관, 대학도서관

327개관, 학교도서관 9,117개관, 전문·특수도서관 387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중에서 대학도서관의 분관, 한국도서관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도서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 206개관, 대학도서관 224개관, 특수·전문도서관 182개관, 학교도서관 147개관과 서울·부산지역 학교도서관모임 회원교 중에서 50개관을 합하여 809개관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1.2.2 질문지 회수현황

먼저 학교도서관을 제외한 611개 도서관에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240개관에서만 회수되어 질문지의 회수율이 40%밖에 되지 않았다. 2차로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조사대상 도서관 중에서 2급 정사서 이상이 한명도 없는 도서관은 제외하고 273개 도서관에 질문지를 배부하고, 전화면담을 통하여 175개관에서 회수되었다. 3차로 학교도서관에 197개 도서관에 질문지를 배부하여 64개관에서 회수되어, 총 479개관에서 회수되었다.

관종별 질문지 회수율은 다음과 같다.

〈표 1〉 질문지 회수 현황

회수	관종별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특수도서관	학교도서관	합 계
배부수		224	206	182	197	809
회수수		164	158	93	64	497
회수율		73.2%	76.7%	51.1%	32.5%	59.2%

1.2.3 조사기간

질문지 조사기간은 1차로 1994. 5. 11 - 5. 31, 2차로 6. 11 - 6. 30, 3차로 7. 7 - 7. 31로 반복해서 실시하였다.

1.2.4 연구의 제한점

- 1) 공공도서관, 특수·전문 도서관, 학교도서관의 경우 사서직원이 없거나 장서량이 극히 적어서 명목상으로 도서실이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많아 도서기호법의 사용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쳤으며,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경우에 서양

서용의 도서기호법에 관해서는 무응답이 각각 63개관(39.9%), 37개관(57.8%)에 이르렀다.

- 2) 학교도서관에 대한 질문지 배부를 여름방학에 임박해서 실시하여 질문지의 회수율이 매우 낮아졌다.
- 3) 장서량에 따른 도서기호법의 현황과 도서기호법의 채용연도에 따른 도서기호법의 현황은 분석결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조사결과에서는 제외시켰다.
- 4) 도서기호법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1.2.5 통계분석

SAS 통계분석패키지를 사용하였다.

2. 도서기호법의 필요성과 역할

도서기호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관적이라는 점에서 분류번호와는 다르다. 분류번호는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해야 하지만 도서기호는 동일한 분류내에서 다른 도서와 관련하여 적당한 위치에 분류번호에 첨가하여 새로운 도서기호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Barden 1937, 5), 동일한 분류번호내에서 각 도서를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이다.

도서기호는 청구기호의 일부이며, 듀이는 청구기호의 목적을 “도서를 빨리 정확하게 배치하고 청구하고 찾아내고 대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분류번호에 첨가된 도서기호는 1) 서가상에 도서를 순서대로 배열, 2) 각 도서마다 간단하고 정확한 청구기호 부여, 3) 서가상에서 특정도서의 위치 지정, 4) 대출자에게 도서대출을 위한 기호 부여, 5) 반납된 도서를 서가에 쉽게 배열, 6) 장서점검을 할 때 도서를 신속하게 식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부여되는 것이다(Barden 1937, 9).

그러나, 이용자들이 서가에 직접 접근하도록 하는 개가제에서는 도서의 정확한 순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더욱이 이러한 도서관에서 도서는 목록에서는 거의 선택되지 않는다.

Margaret Mann(Satija 1990, 21)에 의하면 어떤 사서들은 도서기호는 서가상에서 특

히 이용자들이 직접 접근하는 서가에서는 항상 정확한 순서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전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Bertha Barden(Satija 1993, 21)은 개가제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은 목록을 참조하는 대신에 주제도서에 접근하기 위해서 직접서가에 가서, 브라우징 과정을 통해서 근처의 여기저기에서 원하는 책을 접할 수 있으며, 그래서 도서의 위치가 정확하게 지적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서가에 배열하고 특정한 도서의 청구에 이용되기 위한 도서기호의 가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과 영국에 있는 많은 규모가 큰 도서관에서는 도서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도서기호를 부여하는데 그만큼 경비를 들일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를 않는 것이다 (Comaromi 1981, 11). 즉, 도서기호가 없음으로 야기되는 불편함은 도서기호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포함되는 작업에 비하여 경미하다는 것이다.

물론 도서관은 도서기호 없이도 기능을 할 수는 있다. 다만 도서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므로써 이용자는 동일한 분류항목내에 많이 밀집해 있는 도서를 탐색할 때 책등 또는 카드포켓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야 하므로 불편하고 검색효율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도서기호에서 생기는 이점이 무엇이든지 도서기호를 부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과는 동등하지 않다. 왜냐하면 도서기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인 절약은 탐색단계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위해서 또는 원하는 책을 발견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확장된 탐색을 통해서 값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Comaromi 1981, 11).

H. E. Bliss(Satija 1990, 22)는 도서기호가 없다면 도서의 위치는 매우 어렵고 느리고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Margaret Mann(Satija 1990, 22)은 몇몇 사서들은 도서기호를 폐기한 후에 그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다시 채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도서기호가 없는 정책은 단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로부터 잠재력있는 이용자들을 되돌려 보내는 것일 뿐이다.

앞에서 Mann, Barden, Comaromi 등이 지적한 도서기호의 불필요론은 결국은 기호화하는데 드는 작업상의 노력과 시간을 절약코자 하는데서 나온 방편으로서, 그 수고를 서가배열을 하는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리재철 1970, 5).

도서기호를 생략하므로써 발생하는 단점으로는, 1) 각각의 도서를 구별하는 개별적인 기호가 부족하고, 2) 도서를 서가에 배열하는데 더욱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3) 서가상에서 개별적인 도서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4) 도서대출에서 대출연장과

같은 어떤 절차는 더욱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Barden 1937, 11).

또한 도서기호는 1) 주어진 분류번호내에서 도서의 정확한 위치를 고상하고, 2) 쉽고 정확하게 도서의 위치를 정하여 서가에 배열하고, 3) 도서의 기록의 요소로서 대출 반납에 도움을 주고, 4) 서가목록이 있다면 도서관 자료의 장서점검과 장서파악에서 목록카드기입의 배열에 유용하고, 5) 동일한 분류번호내에서 동일한 저자의 모든 저서, 도서의 여러 판과 여러가지 복사본, 서가상에 관련된 자료, 특정 저자에 관한/의한 모든 저서를 함께 모으고, 6) 도서기호가 연대순으로 다양한 번호라면 특정 주제의 사적인 발달을 묘사하고, 7) 그밖에 소설이나 전기와 같은 분류내에서 도서를 논리적으로 서가상에 배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Satija 1990, 20).

간단히 말하자면 도서기호법은 각 도서마다 간단하고 정확한 청구기호를 간편하게 부여하여 서가상에 일정한 순서대로 쉽게 배열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또한 그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1) 특정한 주제 또는 형식에 있어서 동일한 저자의 저작, 2) 동일한 저작의 다른 판 또는 번역판, 3) 동일한 저자의 개별 또는 집서에 관한 저작, 4) 카드 포켓 또는 책등에 의존하지 않고 전기 또는 문학 비평과 같은 범주에 대한 특정 주제에 관한 저작, 5) 특정주제분야의 학문적 발전과정을 확인하고 최신 도서를 구분하여 모으고자 한다면 도서기호를 이용해야 한다. 위의 것 중에서 아무것도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면 도서기호는 불필요한 것이며 아직 그들을 사용하지 않는 도서관에서 채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도서기호법의 불요론도 있었고 도서관 전산화로 자료의 검색은 더욱 용이해졌으나, 최상의 훌륭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검색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료의 소재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검색한 자료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컴퓨터에 의한 문헌검색이 발달되고 보급되어도 도서관의 이용자가, 그 전부이든 제한된 일부이든, 서가에의 접근이 허용되고 필요한 한은 도서기호법의 필요성도 존속할 것이다(리재철 1985, 34).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 장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이용면과 관리면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기호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와 같이 자료를 원형 그대로 직접 제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정보센터에서와 같이 복사, 초록 등 2차자료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개가제와 폐가제중 어느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책자자료의 집서와 각종 비책자자료의 집서들 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적의 빈도가 잦고 뜸한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분류법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리재철 1970, 4). 때문에 어느 도서관이나 어느 집서에도 다 들어 맞는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장서량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이 상세하게 분류되었는지 아닌지, 서고가 이용자에게 개방되어 있는지, 대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청구기호뿐인지 서명이나 저자를 필요로 하는지, 이용자들이 동일 저자의 도서를 원하는지 다른 저자의 동일 주제의 도서를 원하는지, 최신 자료를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동일한 분류번호내에 도서가 적을 때는 간단한 기호가 주어지고 도서가 많을 때는 복잡한 도서기호가 사용되어야 하고, 동일주제에서 동일저자의 저작을 유취하고자 한다면 저자명순 도서기호법이 적당하고, 별무이용도서나 최신 도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연대순 도서기호법이 적합할 것이다.

3.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종류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에는 수입순 도서기호법, 저자명순 도서기호법, 연대순 도서기호법으로 11종이 있다.

3.1 수입순 도서기호법

수입순 도서기호법은 체계적인 표가 따로 없이 입수되는 순서대로 저자나 발행연도와는 무관하게 서가목록단을 보고 일련번호를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록 구성은 원시적이지만 도서기호를 부여하거나 이용면에서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 다만 저자명순 처럼 동일한 저자아래 저작을 함께 모아주거나 연대순 처럼 학문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가 없으므로 저자기호법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취성의 결여와 순차결정의 우연성 때문에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지탄받고 도퇴되어 버린 줄만 알아왔었는데 최근에 기술보고서, 마이크로필름, 녹음테이프, 음반 등 특수자료의 배열기준으로 재활되고 있는 점과 정보센터에서는 심지어 분류법에

대신하여 부활하기 시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리재철 1970, 3).

3.2 저자명순 도서기호법

저자명순 도서기호법은 저자의 성명 또는 기본기입에서 표목을 기본기호로 삼아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를 혼합하여 기호로 만드는 것으로 분석합성식과 열거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같이 기본기호의 대상어를 기계적인 자모순으로 놓기 위하여 숫자 기호화한 것이다.

3.2.1 분석합성식(조합식) 도서기호법

분석합성식 도서기호법은 알파벳이나 한글 각 문자에 빈도조사를 통해 구해진 일정한 번호를 부여하여 필요에 따라 조합하는 것으로, 저자기호를 매길 때 기본기호 대상어의 첫문자와 합성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리재철 1982)과 LC 저자기호법(박준식, 김남석 1994b, 17-21)이 있다.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은 1958년에 「동서저자기호법의 연구」(리재철 1958a)에서 동서저자기호표 제1안(제1표)과 제2안(제2표)을 창안하여 동년에 제2안만으로 「동서 저자 기호표 및 그 사용규정」(리재철 1958b)을 발행한 이래, 1970년에는 그 개정판인 제3표, 제4표, 제5표 및 제6표를 발표한 것이다. 이 중에서 제3표와 제5표는 목록의 배열에서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는 도서관용으로 만든 것이고, 제4표와 제6표는 「가까나순」으로 배열하는 도서관을 위해서 만든 것이며, 계속해서 북한의 어순배열을 고려한 「가하까순」배열을 위해서 제7표와 제8표를 더 추가시켰다. 그리고 이들 표를 조합하여 「한국현대작가기호표 및 일본현대작가기호표」를 만들어서 제5표에 의해서 열거식 표로 바꾸어 놓았으며(리재철 1972, 20-22), 현재 북한의 어순을 고려한 제7표와 제8표를 제외하면 동서용으로는 제6표가 가장 최신까지 개정된 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LC 저자기호법은 미국의회도서관에 의해서 LC분류표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LC 분류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저자기호표로 개발되었으며, LC분류표 자체가 워낙 세분된 분류표이므로 복잡한 기호체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단순한 체계로 구성하였다. 저자성의 첫문자 1자와 나머지 이름을 나타내는 1자릿수의 십진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숫자를 더 세분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정한 분류번호 아래에 모여 있는 장서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다.

3.2.2 열거식 도서기호법

열거식 도서기호법은 빈도가 많은 저자명을 일일이 열거하여 여기에 우연한 숫자를 순차적으로 붙인 것으로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여러 저자들이 저작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적합하며 미리 만들어 놓은 표를 일일이 들추어서 중복되거나 누락된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하는 불편함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Cutter 2숫자 알파벳순표」, 「Cutter-Sanborn 3숫자 저자기호표」(Cutter 1969),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장일세 1964), 정필모 「韓國文獻記號表」(정필모 1972), 이춘희 「東書著者記號表」(이춘희 1960), 고재창 저자기호법(고재창 1954, 부록), Merrill 저자기호법(Merrill 1912, 127-129)이 있다.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는 4종이 있는데 최초의 것은 숫자만으로 된 Cutter 십진저자기호표로 제1표, 제1표 아래서 전개한 제2표, 제2표 아래서 전개한 제3표로 구성된 계층적이며 구조적인 기호법(박준식, 김남석 1994a, 11-12)과 「Cutter 2숫자 알파벳순표」와 이것을 전개한 「Cutter 3숫자 알파벳순표」, 「Cutter-Sanborn 3숫자 저자기호표」가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Cutter 2숫자 알파벳순표(이후 Cutter원표라 칭함)」와 「Cutter-Sanborn 3숫자 저자기호표(이후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라 칭함)」이다.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는 1961년에 「한국인저자기호표」(장일세 1961)로 편찬되었다가 1964년에 다시 개정하여 「동양서저자기호표」라는 표제로 출판하였다. 이 기호표의 구성은 Cutter-Sanborn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글에 111에서 999까지, 또는 112에서 998까지의 숫자를 배정하였다.

정필모 「韓國文獻記號表」는 1) 한글로써 표기되는 인명으로서 가능한 항목 약 6천여 항목과, 단체명 관할구명 표제 등으로서 가능한 것 약 5천여 항목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2) 항목의 첫글자가 「가」에서 「고」까지는 「ㄱ」, 「교」에서 「기」까지는 「고」 등으로 배정하여 첫째의 주기호를 결정하고, 3) 각 주기호 밑에 아라비아숫자 101부터 999까지(필요에 따라서는 1~49 또는 1~99, 끝자리에 0(영)이 들어가는 숫자는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기호표를 구성한 것이다.

이춘희 「東書著者記號表」는 동양의 저자명으로 표시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약 3,600

개를 그것을 제1표 ㄱ-ㅇ, 제2표 ㄴ-ㄷ, 제3표 ㄹ,ㅁ-ㄴ, 제4표 ㅅ-ㅈ, 제5표 ㅊ,ㅎ- ㅋ, ㅌ에 대체로 두행씩 짝을 지어 배열하고 111-999까지 세숫자를 배치하였다. 중국의 저자명은 우리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고 일본의 저자명은 원음대로 읽어 한글로 표기한다. 저자명의 성의 초성을 앞세우고 성과 이름의 첫자를 해당번호로 전환하여 저자기호를 준 다음에 서명 첫자의 초성을 부기한다. 동일한 분류번호내에서 서로 다른 저자가 동일한 저자기호를 나타내게 되었을 경우는 번호를 전개하되 세자리 숫자 다음에는 소수점을 찍도록 한다.

고재창 저자기호법은 한국은행 도서관 장서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된 「한은도서분류법」(고재창 1954)의 부록으로 수록된 것으로, 한국과 중국의 도서를 위한 「韓國著者記號表」와 일본의 도서를 위한 「日本著者記號表」가 있다. 「韓國著者記號表」의 구성은 제I표는 한국의 성을 초성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구분하고 가나다순의 각 행에 1~9까지의 아라비아숫자를 적절히 배정한 것이며, 제II표는 제I표와 같이 하되 이를 더 세분하여 11~99까지의 숫자를 각 10자리수(20, 30...90)를 제외하고 배정한 것이다. 「日本著者記號表」도 「韓國著者記號表」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Merrill 저자기호법은 제1표는 인명, 지명, 주제명을 위한 표이고, 제2표는 연속간행물의 표제를 위한 기호표이며, 제3표는 십진식 연대기호표로 모두 3개의 독립된 표로 이루어져 있다. 인명과 지명, 주제명을 위한 제1표는 A에서 X-Z까지 모두 99개의 표목을 나열하고, 여기에 01부터 99까지의 숫자를 부여한 매우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Cutter의 두 자리수 기호표처럼 혼합식 기호법을 채택하지 않고 단지 숫자만으로 기호를 삼계 하는 숫자기호법을 채택하였다(김남석, 박준식 1994b, 16-17).

3.3 연대순 도서기호법

연대순 기호법은 동일분류내에서 자료가 발행된 연도를 문자와 숫자로 기호화하여 도서기호로 사용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리재철 1986)이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새연대순도서기호법」은 저작의 발행연도를 서기연도로 통일하여 자료의 주제별에 따라 발행연도 자체를 도서기호나 도서기호의 부기사항으로 활용한 것이다. 발행연도를 도서기호 대신 도서기호난에 채기하거나 주제에 따라서는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기고 다음에 연대기호를 붙이는 방법으로 출판연도의 마지막 두자리 숫자에서 부터 전

부를 도서기호로 부기하고 서양서에는 a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호법은 일부 주제에는 저자기호법을 적용하던가 또는 저자기호법과 연대순 기호법을 혼용해야 하고 동일한 주제아래 동일한 저자의 저작물이 한데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되지만, 오히려 범람하는 자료에 대해서 폐기 도서나 별무이용 도서를 구별하여 장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한 주제의 학문의 발달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창안된 것이다.

3.4 기타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서기호법은 이미 출판되어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도서기호법 11종 이외에 자관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11종의 도서기호법이 있다.

- 1) 리재철 「동서저자기호표」를 응용한 한양대학교 동서저자기호표로, 저자의 첫번째 성은 적고 이름의 첫자를 초, 중, 종성으로 가려서 「ㅏ 는 1」, 「ㄱ.ㄴ.ㅇ 는 2」, 「ㄷ.ㄹ.ㄱ. 는 3」, 「ㅁ.ㅂ.ㄱ.ㅇ 는 4」, 「ㅅ.ㅈ 는 5」, 「ㅊ.ㅊ 는 6」, 「ㅊ.ㅡ 는 7」, 「ㅅ.ㅋ.ㅌ. ㅣ 는 8」, 「ㅍ.ㅎ 는 9」로 각각의 문자에 숫자를 부여하여 적용한다.
- 2) 엘라드(Elrod 1958, 167)에 의해서 제안된 것으로, 동양서는 저자명 세자리를 그대로 기재하고, 서양서는 저자명에서 저자의 성에서 처음 세문자를 대문자로 기재한다.
- 3) 서울대학교 도서기호법으로, Cutter's three-figure Author Table에 저자명을 수정하여 추가하고 기본기호의 대상어를 로마자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4) 박준식 영미저자기호표로,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개정 보완한 것이다.
- 5)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기호법으로, 저자명의 성을 로마자화하여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사용하여 앞자리 두자를 선택하고 이름의 첫자에서 중성을 「ㅏ.ㅑ 는 1」, 「ㅓ.ㅕ 는 2」, 「ㄱ.ㅋ 는 3」, 「ㄴ.ㅋ 는 4」, 「ㄴ.ㄴ.ㅑ.ㅑ 는 5」, 「ㅇ 는 6」, 「ㅈ.ㄱ.ㄱ.ㅑ 는 7」, 「ㅊ 는 8」, 「ㅡ.ㅣ.ㄴ 는 9」와 같이 숫자화하여 첨가하는 것이다.
- 6)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 저자기호표(수정·보완판)」(국립중앙도서관 1986),
- 7) 「한글순도서기호법」 제5표와 LC 저자기호법에 발행년도를 부가해서 사용하는 것.
- 8) 서양서에서 분류번호 아래 저자명 알파벳 두자를 채택하고 있는 것.

- 9) 서명의 둘째 단어까지에서 첫자를 따서 대문자로 표시하고 동양서의 경우에는 서명을 로마자화하여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 등이 있으며,
- 10) 산업기술정보원에서는 연구보고서의 경우에 연구보고서를 하나의 단행본으로 보고 기관명을 고유번호로 부여하여 정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RP9647(9647은 과학기술연구원 고유번호)
- 11) 동일한 분류번호내에서 동일한 저자에 의한 두개의 서명이 같은 문자로 시작될 때 두번째 문자를 숫자로 표현하여 덧붙이기 위해서 Barden에 의해 만들어진 표를(Barden 1937, 16) 도서기호법으로 사용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기존에 편찬된 도서기호법 외에도 10여종이 통용되고 있다.

4. 도서기호법의 사용 및 변경 현황

4.1 도서기호법 사용현황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은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을 하나의 표로 볼 때 동서용 8종<표 2>, 양서용 9종<표 3>, 동서와 양서를 합하여 11종, 그리고 기타 11종으로 약 22종의 도서기호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글순도서기호법」은 제1표부터 제8표까지 8개의 기호표<표 4>가 각각 독립된 표로 사용되고 있다.

4.1.1 동서용 도서기호법의 관종별 사용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서용 도서기호법의 사용현황 결과를 관종별로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동서용은 전체적으로 수입순 13개관(28%), 저자명순 분석합성식이 325개관(67.8%), 저자명순 열거식이 93개관(19.4%), 연대순이 3개관(0.6%), 기타 36개관(7.6%), 무응답 9개관(1.9%)으로 저자명순 분석합성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기호법의 종류별로는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이 323개관(67.4%)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68개관(14.2%), 이춘희 「동서저자

〈표 2〉 동서용 관종별 도서관호법 사용현황

도서관호법		관 종	대 학	공 공	특 수	학 교	합 계
수입순	수입순 도서관호법	관 수	2	5	5	1	13
		%	1.2	3.2	5.4	1.6	2.7
저자명순	리재철 한글순도서관호법	관 수	103	111	62	47	323
		%	62.8	70.3	66.7	73.5	67.4
분석합성식	LC 저자기호법	관 수			2		2
		%			2.2		0.4
도서관호법	소 계	관 수	103	111	64	47	325
		%	62.8	70.3	68.9	73.5	67.8
저자명순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관 수	27	32	5	4	68
		%	16.5	20.3	5.4	6.2	14.2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	관 수	9		4	2	15
		%	5.5		4.3	3.1	3.1
열거식	정필모 한국분헌기호표	관 수	3	1	5		9
		%	1.8	0.6	5.4		1.9
도서관호법	고재창 저자기호법	관 수			1		1
		%			1.1		0.2
	소 계	관 수	39	33	15	6	93
		%	23.8	20.9	16.2	9.3	19.4
연대순 도서관호법	리재철 새연대순 도서관호법	관 수	2		1		3
		%	1.2		1.1		0.6
기 타		관 수	18	9	6	3	36
		%	11.0	5.7	6.5	4.7	7.5
무 응 답		관 수			2	7	9
		%			2.2	10.9	1.9
합 계		관 수	164	158	93	64	479
		%	100	100	100	100	100

기호표」 15개관(31%), 수입순도서기호법 13개관(27%),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 9개관(19%),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 3개관, LC 저자기호법 2개관, 그리고 고재창 저자기호법이 1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홍옥자에 의해 조사한 도서기호법의 채용실태(홍옥자 1977, 13)에서 동서용으로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77개관(53.1%),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 3개관(3%),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22개관(15.1%),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 1개관(1%), 카터 4개관(2.7%), 수입순도서기호법 18개관(12.6%)에서 6종의 도서기호법이 사용된 것에 비하면 그 종수도 11종으로 늘어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도 67.4%로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수입순도서기호법은 2.7%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가. 대학도서관

관종별로 보면 대학도서관에서는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이 103개관(62.8%, 전체의 21.5%)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가 27개관(16.5%),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 9개관(5.5%),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 3개관, 수입순도서기호법 2개관,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 2개관으로 모두 9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는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이 111개관(70.3%, 전체의 23.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32개관(20.3%), 수입순도서기호법 5개관,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가 1개관으로 모두 5종이 사용되고 있다.

다. 특수·전문 도서관

특수·전문도서관에서는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이 64개관(68.9%, 전체의 13.4%)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입순도서기호법과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와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가 각각 5개관씩,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 4개관, LC 저자기호법 2개관, 고재창 저자명기호법과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이 각각 1개관씩으로 모두 9종이 사용되고 있다.

라.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에서는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이 47개관(73.5%, 전체의 9.8%)으로 가장 많고,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4개관,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 2개관,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과 수입순도서기호법이 각각 1개관씩으로 모두 6종이 사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동서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으로, 학교도서관의 73.5% 공공도서관의 70.3%, 특수·전문 도서관의 66.7%, 대학도서관의 62.8%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4.1.2 양서용 도서기호법의 관종별 사용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서용 도서기호법의 사용현황 결과를 관종별로 보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양서용은 전체적으로 수입순 9개관(1.9%), 저자명순 분석합성식 62개관(13.0%), 저자명순 열거식 285개관(59.5%), 연대순 3개관(0.6%), 기타 15개관(3.1%), 무응답 105개관(21.9%)으로 열거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기호법의 종류별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가 254개관(53.0%)으로 가장 많고,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40개관(8.4%), LC 저자기호법 22개관(4.6%), Cutter 원표 21개관(4.4%), 수입순 도서기호법 9개관(1.9%),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8개관(1.7%),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 3개관, 그리고 고재창 저자기호법과 메릴 저자기호법이 각각 1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서기호법의 채용실태조사(홍옥자 1977, 13)에서 양서용으로 Cutter 저자기호법 88개관(60.7%), LC 저자기호법 4개관(2.7%), 메릴 1개관(0.8%), 수입순도서기호법 13개관(8.8%)에서 4종의 도서기호법이 사용된 것에 비하면 그 종수는 10종으로 증가하고,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이 40개관(8.4%)으로, LC 저자기호법이 22개관(4.6%)로 증가하고 나머지는 사용율이 감소하였다.

가. 대학도서관

관종별로 살펴보면 대학도서관에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가 138개관(84.1%, 전체의 28.8%)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Cutter 원표 7개관,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4개관, LC 저자기호법 3개관, 그리고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 1개관

〈표 3〉 양서용 관종별 도서기호법 사용현황

도서기호법		관 종	대 학	공 공	특 수	학 교	합 계
수입순	수입순 도서기호법	관 수		3	5	1	9
		%		1.9	5.4	1.6	1.9
저자명순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관 수	4	16	9	11	40
		%	2.4	10.1	9.7	17.2	8.4
분석합성식	LC 저자기호법	관 수	3	5	14		22
		%	1.8	3.2	15.1		4.6
도서기호법	소 계	관 수	7	21	23	11	62
		%	4.2	13.3	24.8	17.2	13.0
저자명순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	관 수	138	61	48	7	254
		%	84.1	38.6	51.6	10.9	53.0
열거식	Cutter 원표	관 수	7	3	5	6	21
		%	4.3	1.9	5.4	9.4	4.4
도서기호법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관 수	2	4		2	8
		%	1.2	2.5		3.1	1.7
도서기호법	고재창 저자기호법	관 수			1		1
		%			1.1		0.2
도서기호법	매릴 저자기호법	관 수			1		1
		%			1.1		0.2
소 계	소 계	관 수	147	68	55	15	285
		%	89.6	43.0	59.2	23.4	59.5
연대순 도서기호법	리재철 새연대순 도서기호법	관 수	2	1			3
		%	1.2	0.6			0.6
기 타	기 타	관 수	7	2	6		15
		%	4.2	1.2	6.5		3.1
무 응 답	무 응 답	관 수	1	63	4	37	105
		%	0.6	39.9	4.3	57.8	21.9
합 계	합 계	관 수	164	158	93	64	479
		%	100	100	100	100	100

법」과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에서 각각 2개관으로 모두 7종이 사용되고 있어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가 월등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가 61개관(38.6%, 전체의 12.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16개관(10.1%), LC 저자기호법 5개관,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4개관, 수입순도서기호법 3개관, Cutter원표 3개관,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 1개관으로 모두 8종이 사용되고 있다.

다. 특수·전문 도서관

특수·전문 도서관에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가 48개관(51.6%, 전체의 10.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LC 저자기호법 14개관(15.1%),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9개관, 수입순도서기호법과 Cutter원표가 각각 5개관씩, 고재창 저자기호법과 메릴 저자기호법이 각각 1개관으로 모두 8종이 사용되고 있었다.

라.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에서는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이 11개관(17.2%, 전체의 2.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 7개관, Cutter 원표 6개관,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2개관 수입순도서기호법 1개관으로 모두 5종이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양서용으로는 대학도서관의 84.1%, 특수·전문 도서관의 51.6%, 공공도서관의 38.6%가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사용하고, 학교도서관의 17.7%가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3 한글순도서기호법의 사용현황

다음으로 < 표 2 >에서 한 종으로 처리된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의 사용현황을 제1표에서 제8표까지를 세분하여 보면 < 표 4 >와 같다. 단, 리재철의 「동서저자기호표」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제2표로 처리하였다.

< 표 4 >에서와 같이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은 동서용으로 323개관, 양서용으로 40개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표 4〉 한글순도서기호법 사용 현황

한글순	관종별	대 학		공 공		특 수		학 교		합 계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제1표	관 수	2		6		3		5	1	16	1
	%	1.9		5.4		4.8		10.6	9.1	5.0	2.5
제2표	관 수	59	1	50	10	24	4	27	6	160	21
	%	57.3	25.0	45.0	62.5	38.7	44.4	57.4	54.5	49.5	52.5
제3표	관 수	3		14	1	4	2	4	1	25	4
	%	2.9		12.6	6.2	6.5	22.2	8.5	9.1	7.7	10.0
제4표	관 수	4				1	1	1		6	1
	%	3.9				1.6	11.1	2.1		1.9	2.5
제5표	관 수	33	3	36	5	28	1	9	3	106	12
	%	32.0	75.0	32.4	31.3	45.2	11.1	19.1	27.3	32.8	30.0
제6표	관 수	2		3		2		1		8	
	%	1.9		2.7		3.2		2.1		2.5	
제7표	관 수			1						1	
	%			0.9						0.3	
제8표	관 수			1			1			1	1
	%			0.9			11.1			0.9	2.5
합 계	관 수	103	4	111	16	62	9	47	11	323	4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 동서

「한글순도서기호법」은 동서용으로 제2표가 160개관(49.5%, 전체의 33.4%)으로 가장 많고, 제5표가 106개관(32.8%, 전체의 22.1%)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종별로는 대학도서관 59개관(57.3%, 전체의 12.5%), 공공도서관 50개관(45.0%, 전체의 10.4%), 학교도서관 27개관(57.4%, 전체의 5.6%)에서는 제2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특수도서관에서는 제5표가 28개관(45.2%, 전체의 5.8%)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2표가 24개관(38.7%, 전체의

5.0%)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양서

양서용으로는 제2표가 21개관, 제5표가 12개관, 제1표, 제4표, 제8표가 각각 1개관으로 모두 40개관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에서 제2표가 10개관(62.5%, 전체의 2.1%)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에서 제2표가 6개관, 특수·전문 도서관에서 제2표가 4개관, 대학도서관에서 제5표가 3개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4.2 도서기호법의 변경유무

각 도서관에서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경우가 있는지에 관해서 조사해 본 결과를 관종별로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관종별 도서기호법 변경유무

변경	관종	대 학		공 공		특 수		학 교		합 계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있 다	관 수	28	24	17	6	13	11	9	5	67	46
	%	17.1	14.6	10.8	3.8	14.0	11.8	14.5	7.8	14.1	9.6
없 다	관 수	132	137	139	88	77	75	48	22	396	322
	%	80.5	83.5	88.0	55.7	82.8	80.6	75.0	34.4	82.5	67.2
무응답	관 수	4	3	2	64	3	7	7	37	16	111
	%	2.4	1.8	1.3	40.5	3.2	10.9	10.9	57.8	3.4	23.2
합 계	관 수	164	164	158	158	93	93	64	64	479	479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5>에서와 같이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도서관은 동서에서는 67개관(14.1%)이고, 양서에서는 46개관(9.6%)으로 나타났다. 관종별로는 대학도서관은 동서 28개관(17.1%)과 양서 24개관(14.6%), 공공도서관은 동서 17개관(10.8%)과 양서 6개관

(38%), 특수·전문 도서관은 동서 13개관(14.0%)과 양서 11개관(11.8%), 학교도서관은 동서 9개관(14.5%)과 양서 5개관(7.8%)에서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도서기호법 변경후의 서가배열 및 기존장서정리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후에 기존장서의 정리 문제와 서가상의 배열문제는 앞으로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도서관에서는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4.3.1 서가상의 배열방법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후에 기존장서를 서가상에 배열하는 방법은 <표 6>과 같다.

<표 6> 관종별 서가상의 배열방법

배열 방법	관종별	대 학		공 공		특 수		학 교		합 계	
	장서별 관수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별도 배열	관수	2	1	1	1	2	2	1	
	%	7.1	4.2	5.9	16.7	15.4	18.2	11.1		9.0	8.7
혼합 배열	관수	22	15	16	3	10	3	5	3	53	24
	%	78.6	62.5	94.1	50.0	76.9	27.3	55.6	60	79.1	52.2
기 타	관수	3	6		2	1	6	3	2	7	16
	%	10.7	25.0		33.3	7.7	54.5	33.3	40	10.5	34.8
무응답	관수	1	2							1	2
	%	3.6	8.3							1.5	4.4
합 계	관수	28	24	17	6	13	11	9	5	67	46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표 6>에서와 같이 동서는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67개관 중에서 6개관에서만 별도 배열을 하고 있고, 53개관(79.1%)이 기존장서와 혼합해서 배열하고 있으며, 7개관

(10.5%)이 기타방법으로 전체장서를 소급정리하여 재배열하고 있어서 혼합배열의 비중이 매우 높는데, 그중에서 대학도서관의 78.6%, 공공도서관의 94.1%, 특수·전문 도서관의 76.9%, 학교도서관의 55.6%가 혼합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서는 24개관(52.2%)은 혼합하여 배열하였으며, 다음으로 기타 방법으로 16개관(34.8%)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타 방법에는 대개 전체 장서를 소급정리하여 서가상에 재배열하는 방법을 의미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기존장서와 혼합하여 배열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4개관에서만이 별도배열을 하고 있다.

4.3.2 기존장서의 정리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후에 기존장서를 정리하는 방법은 <표 7>과 같다.

<표 7> 관종별 기존장서의 정리방법

기 존 장 서	관종별 장서별 관수	대 학		공 공		특 수		학 교		합 계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소 급 정 리	관 수	13	13	5	3	7	6	4	3	29	25
	%	46.4	54.2	29.4	50.0	53.8	54.5	44.4	60.0	43.3	54.4
신 규 정 리	관 수	13	9	12	3	6	5	5	2	36	19
	%	46.4	37.5	70.6	50.0	46.2	45.5	55.6	40.0	53.7	41.3
기 타	관 수	1								1	
	%	3.6								1.5	
무 응답	관 수	1	2							1	2
	%	3.6	8.3							1.5	4.4
합 계	관 수	28	24	17	6	13	11	9	5	67	46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표 7>에서와 같이 동서는 새로운 도서기호법을 사용하기로 한 시점부터 변경된 도서기호를 매기는 방법이 67개관 중에서 36개관(53.7%), 전체 장서를 소급하여 정리하는 방법은 29개관(43.3%)으로 나타났으며, 양서는 전체 장서를 소급하여 정리하는

〈표 8〉과 같이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도서관은 동서는 92개관(19.2%), 양서는 42개관(8.9%)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의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도서관수와 비교해볼 때 동서는 67개관에서 25개관이 증가한 92개관으로 37.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도서관 32개관과 공공도서관 27개관과 특수·전문 도서관 24개관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양서는 학교도서관 15개관에서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반면에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도서관은 3개관으로 격감하여 전체적으로 2개관이 감소하였다.

4.5 도서기호법 변경현황

4.5.1 변경하고자 하는 동서용의 도서기호법 현황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동서용의 도서기호법은 〈표 9〉와 같다.

〈표 9〉와 같이 동서용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도서기호법으로 제시된 것은 수입순 9개관(13%), 저자명순 분석합성식 27개관(39.1%), 저자명순 열거식 11개관(16.1%), 연대순 17개관(24.6%)으로 저자명순 분석합성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기호법의 각각의 종류별로 보면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이 17개관(24.6%)으로 가장 많고,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여기서는 제2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한글순도서기호법」 각각의 제표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모두 27개관으로 가장 많다.) 9개관, 제5표 9개관, 제8표 8개관, 수입순도서기호법 9개관,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 2개관, 그리고 고재창 저자기호법과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제1표와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가 각각 1개관의 순으로 모두 12종의 도서기호법이 나타났다.

관종별로는 대학도서관은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이 9개관(37.5%)으로 가장 많고, 수입순과 리재철 한글순과 한글순제5표가 각각 3개관 등 모두 9종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은 수입순도서기호법이 6개관(24%)으로 가장 많고 한글순이 4개관, 기타에서 엘로드식이 4개관 등 모두 8종으로, 특수·전문 도서관은 「새연대순도서기호법」이 5개관(34.7%)으로 가장 많고 한글순 제5표와 제8표가 각각 3개관 등 모두 5종으로, 학교도서관은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2개관 등 모두 5종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동서용의 도서기호법을 변경한다면 전반적으로 저자명순 분석합성식이 가장 많은 반면에 도서기호법의 종류별로는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변경하고자 하는 동서용의 도서기호법 현황

도서기호법		관종별 비율	대 학	공 공	특 수	학 교	합 계
		관 수					
수입순	수입순 도서기호법	관 수	3	6			9
		%	12.5	24.0			13.0
저자명순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관 수	3	4	2		9
		%	12.5	16.0	14.3		13.0
	한글순도서기호법 제1표	관 수				1	1
		%				16.7	1.5
분석합성식	한글순도서기호법 제5표	관 수	3	2	3	1	9
		%	12.5	8.0	21.4	16.7	13.0
도서기호법	한글순도서기호법 제8표	관 수	2	3	3		8
		%	8.3	12.0	21.4		11.6
	소 계	관 수	8	9	8	2	27
		%	33.8	36.0	57.1	33.4	39.1
저자명순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관 수	1	2	1	2	6
		%	4.2	8.0	7.1	33.3	8.7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	관 수	1				1
		%	4.2				1.5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	관 수		2			2
		%		8.0			2.9
열거식	고재창 저자기호법	관 수				1	1
		%				16.7	1.5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	관 수	1				1
	%	4.2				1.5	
소 계	관 수	3	4	1	3	11	
	%	12.6	16.0	7.1	50.0	16.1	
연대순 도서기호법	리재철 새연대순 도서기호법	관 수	9	2	5	1	17
		%	37.5	8.0	35.7	16.7	24.6
기 타	엘로드식 저자기호법	관 수	1	4			5
		%	4.2	16.0			7.2
합 계		관 수	24	25	14	6	69
		%	100	100	100	100	100

〈표 10〉 변경하고자 하는 양서용의 도서기호법 현황

도서기호법		관종별 비율	대 학	공 공	특 수	학 교	합 계
		관 수					
수입순	수입순 도서기호법	관 수		3		1	4
		%		37.5		33.3	10.8
저자명순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제1표	관 수				1	1
		%				33.3	2.7
	한글순도서기호법 제2표	관 수		1			1
		%		12.5			2.7
분석합성식	한글순도서기호법 제5표	관 수			1		1
		%			8.3		2.7
도서기호법	LC 저자기호법	관 수	4		4		8
		%	28.6		33.3		21.6
	소 계	관 수	4	1	5	1	11
		%	28.6	12.5	41.6	33.3	29.7
저자명순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	관 수	4	3	5		12
		%	28.6	37.5	41.7		32.4
	Cutter 원표	관 수	1				1
		%	7.1				2.7
열거식	이훈희 동서저자기호표	관 수	1				1
		%	7.1				2.7
도서기호법	고재창 저자기호법	관 수				1	1
		%				33.3	2.7
	소 계	관 수	6	3	5	1	15
		%	42.8	37.5	41.7	33.3	40.5
연대순	리재철 새연대순 도서기호법	관 수	3		2		5
		%	21.4		16.7		13.5
	메릴 연대순도서기호법	관 수		1			1
		%		12.5			2.7
도서기호법	랑가나단 연대순도서기호법	관 수	1				1
		%	7.1				2.7
	소 계	관 수	4	1	2	1	7
		%	28.5	12.5	16.7	33.3	18.9
합 계		관 수	14	8	12	3	37
		%	100	100	100	100	100

4.5.2 양서용 변경가능한 도서기호법 현황

도서기호법을 변경한다면 양서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서기호법은 <표 10>과 같다. <표 10>과 같이 양서용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도서기호법은 수입순 4개관(10.8%), 저자명순 분석합성식 11개관(29.7%), 저자명순 열거식 15개관(40.5%), 연대순 9개관(18.9%)으로 저자명순 열거식이 가장 많다.

그러나 도서기호법 종류별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가 12개관(32.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LC 저자기호법 8개관,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이 5개관, 수입순도서기호법 3개관, 고재창 저자기호법과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제1표, 제2표, 제5표와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 Cutter 원표, 메릴연대순, 랑가나단 연대순 도서기호법이 각각 1개관의 순으로 모두 12종의 도서기호법이 나타났다.

관종별로는 대학도서관은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와 LC 저자기호법이 각각 4개관으로 가장 많고 새연대순 3개관 등 6종이며, 공공도서관은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 3개관, 수입순 2개관, 한글순 제2표와 메릴연대순에서 각각 1개관으로 4종이고, 특수·전문 도서관은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 5개관, LC 저자기호법 4개관, 새연대순 2개관, 한글순 제5표 1개관으로 4종이며, 학교도서관은 수입순과 고재창 저자기호법과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제1표에서 각각 1개관으로 3종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양서용의 도서기호법을 변경한다면 저자명순 열거식이 가장 많고, 도서기호법의 종류별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괄목할만한 것으로 동서는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이 17개관으로 전체의 24.6%이며, 양서는 「새연대순도서기호법」 5개관과 메릴과 랑가나단연대순도서기호법 각각 1개관을 합하여 7개관(18.9)으로 연대순도서기호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도서기호법에 관한 문제점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경우와 변경하려는 경우 그리고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 싶지만 변경할 수 없는 이유와 그밖에 도서기호법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 결과에 의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5.1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이유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이유는 <표 11>과 같다.

<표 11> 도서기호법 변경 이유

변경원인	관종별	대 학		공 공		특 수		학 교		합 계		
	장서별 관수	동	양	동	양	동	양	동	양	동	양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담당사서의 진출입	관 수	2	2	1				2	1	1	4	5
도서관 전산화	관 수	1	2			1					2	2
도서관의 재개관	관 수			2	2	2	1				4	3
도서기호 매김의 간편성	관 수			4	1						4	1
도서기호법 자체 문제	관 수	5	3	1		1	1	2	1		9	5
청구기호의 중복	관 수	6	3	4	1						10	4
동일저자·동일주제 유취	관 수	2		2							4	
분류법의 변경	관 수	2	5			5	6	2	1		9	12
서고의 개가제 변환	관 수			1	1						1	1
도서관의 업무개선	관 수	1	3	1		1	1				3	4
이용자의 편리	관 수			3	2			1			4	2
최신 자료의 구분	관 수	1	1			1					2	1
학문의 발달과정 확인	관 수	1	1								1	1
효율적인 장서 관리	관 수	4	2		2	1		1			6	4
합 계	관 수	25	22	19	9	12	11	7	3		63	45

<표 11>과 같이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이유는 10여가지로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로는 동서는 청구기호의 중복이 많아서 도서기호의 중복을 피하고 폭 넓은 전개를 할 수 있는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한 것이 11개관으로 가장 많고, 도서기호법 자체문제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사용하기 간편한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한 경우가 9개관, 도서분류법을 바꾸면서 도서기호법까지 변경한 경우가 9개관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기호법 자체문제는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없고 다만 열거식 도서기호법에서 분석합성식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하거나, 전개항목이 많아서 도서기호를 매기는 것이 능률적인 더 나은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비체계적인 임의의 기호를 사용하다가 합리적인 도서기호법을 채용한 한 경우 등이다.

분류법을 변경하는 것은 자관의 특성에 맞는 분류법을 개발한 경우와 자관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던 분류법을 기존의 분류법으로 변경한 경우, DDC를 사용하다가 동서는 KDC로, KCD를 사용하다가 양서는 DDC로 변경한 경우와 그 반대로 동서·양서에 통일된 분류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 효율적인 장서관리를 위해서 서가배열을 통일시키고 서가목록이나 장서배열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거나, 도서관 전산화의 일환으로 도서기호법까지 변경하거나, 형편상 도서관업무를 중단하였거나 유사기관과의 통합으로 도서관을 재개관하게 되어 도서기호법까지 변경하거나, 이용자가 도서를 검색하거나 대출시에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유로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서는 분류법을 변경하면서 도서기호법까지 변경한 것이 12개관으로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사서의 진출입 5개관과 도서기호법 자체 문제 5개관, 청구기호의 중복 4개관, 도서관 업무개선의 일환 4개관, 효율적인 장서관리 4개관 등으로 도서기호법을 변경하였다.

관종별로는 동서용의 경우에 대학도서관은 청구기호의 중복으로 변경한 경우가 6개관으로 가장 많고, 도서기호법 자체문제 5개관, 효율적인 장서관리 4개관 등의 이유로 변경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은 청구기호의 중복 4개관과 도서기호 매김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4개관에서 도서기호법을 변경하였다. 특수·전문도서관은 분류법의 변경이 5개관으로 가장 주된 변경 이유이며, 학교도서관은 분류법의 변경과 도서기호법 자체문제가 각각 2개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관종별 양서용의 경우에는 대학도서관은 분류법의 변경이 5개관으로 가장 주된 이유이며, 다음으로 도서기호법 자체문제, 청구기호의 중복, 도서관 업무개선의 일환 등이 각각 3개관이다.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재개관과 이용자의 편리와 효율적인 장서관리를 위해서 각각 2개관에서 변경하였으며, 특수·전문도서관은 분류법의 변경이 6개관으로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이유 중에서 도서기호법에 관한 문제만을 보면

(1) 전개항목의 부족으로 인한 청구기호의 중복 방지, (2) 도서기호를 매기는 것이 간편한 도서기호법으로 변경, (3) 동일주제에서 동일저자의 저작을 유취, (4) 최신 자료를 구분, (5) 학문의 발달과정을 추이할 수 있는 도서기호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도서기호법 자체 문제와 효율적인 장서관리는 위의 모든 문제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5.2 도서기호법을 변경하려는 이유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표 12>와 같다.

<표 12>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

변경원인	관종별	대학		공공		특수		학교		합계	
	장서별 관수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도서관 전산화	관수	4	4	2	2	1	2			7	8
도서기호 매김의 간편성	관수	4					1			4	1
기본기호의 대상어 문제	관수	2		1			1			3	1
도서기호법 자체문제	관수	6	2	3	1	3	1	2		14	4
동서·양서 기호법 통일	관수	1	1	1						2	1
동일저자·동일주제 유취	관수	1		3	1	2				6	1
부차적기호 전개의 미흡	관수		1	2						2	1
서가배열의 통일	관수	1	1	7		2	1			10	2
이용자의 편리	관수	2		4	1	1	1			7	2
청구기호의 중복	관수	19	9	11	1	14	4	4		48	14
최신 기호법의 사용	관수	1	1	2	1			1		4	2
최신 자료의 구분	관수	3	1	1	1	1	1			5	3
타도서관과의 균형	관수		1		1	1	1			1	3
합계	관수	44	21	37	9	25	13	7		113	43

<표 12>와 같이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동서는 청구기

호의 중복이 48개관으로 가장 많고, 도서기호법 자체 문제 14개관, 서가배열의 통일 10개관, 도서관 전산화 7개관, 이용자의 편리 7개관, 동일주제에서 동일저자의 저작 유취 6개관, 최신 자료 구분 5개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서는 역시 청구기호의 중복에서 14개관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서관 전산화 8개관과 도서기호법 자체문제 4개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종별로 동서용의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학 도서관은 청구기호의 중복이 19개관으로 가장 많고, 도서기호법 자체문제 6개관, 도서관 전산화 4개관, 도서기호 매김을 간편하게 하려는 것 4개관 등이다. 공공도서관은 청구기호의 중복이 11개관으로 가장 많고, 서가배열의 통일 7개관, 이용자의 편리 4개관, 도서기호법 자체문제 3개관, 동일 주제하에서 동일저자의 저작을 유취하는 것이 3개관 등이다. 특수·전문도서관 역시 청구기호의 중복이 14개관으로 가장 많고, 그밖에 도서기호법 자체문제 3개관, 서가배열의 통일 2개관, 동일 주제하에서 동일저자의 저작을 유취하는 것이 2개관 등이다. 학교도서관은 청구기호의 중복 4개관과 도서기호법 자체문제 2개관, 최신 도서기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양서용에서 대학도서관은 청구기호의 중복이 9개관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서관 전산화 4개관, 도서기호법 자체문제 2개관 등이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전산화 2개관을 비롯하여 도서기호법 자체문제 등이 있으며, 특수·전문도서관은 청구기호의 중복 4개관과 도서관 전산화 2개관 등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이유와는 달리 (1) 도서기호법의 구조상에서 기본기호의 대상어와 부차적기호의 적용에 관한 것, (2) 도서기호법의 역할에서 청구기호의 중복 방지, 동일 주제하에 동일 저자의 저작 유취, 서가배열의 통일, 최신 자료를 구분하는 것, (3) 도서기호법 자체에서 도서매김이 간편할 것, 동서와 양서 기호법의 통일, 도서관 전산화에 적합할 것, 이용하기 편리할 것, 타도서관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 등이 있다.

5.3 도서기호법의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하지만 변경하기가 어려운 도서관의 형편은 <표 13>과 같다.

〈표 13〉 도서기호법을 변경할 수 없는 형편상의 이유

변경 불능의 원인	관종별	대 학		공 공		특 수		학 교		합 계	
		장서별	동	양	동	양	동	양	동	양	동
	관수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관례상 변경의 어려움	관 수	3		1							4
기존장서·서가목록의 배열	관 수	7	3	7	2	7	3	4		25	8
도서관 운영상의 어려움	관 수	1				1		1		3	
도서관 업무의 이해 부족	관 수	3	2	3				1		7	2
동일저자·동일주제 유취	관 수						1				1
변경이전 간행된 자료정리	관 수					1	1			1	1
변경에 대한 신중한 고려	관 수		1			1				1	1
분류법까지 변경	관 수	1	1							1	1
소급정리에 따른 지원부족	관 수	17	10	20	4	9	4	13	1	59	19
이용자의 편리	관 수	1		1		1		3		6	
최적의 도서기호법 부재	관 수	5					1			5	1
타도서관과의 균형 문제	관 수			2						2	
합 계	관 수	38	17	34	6	20	10	22	1	114	34

〈표 13〉과 같이 도서기호법을 변경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전체 장서를 소급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이 동서 59개관과 양서 19개관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고내에서 기존장서와의 배열과 서가목록의 배열상의 문제로 동서 25개관과 양서 8개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동서와 양서, 관종별로 동일한 이유로 도서기호법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도서관 업무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도서기호법의 변경이 정당화되지 못하고, 도서기호법을 변경하므로써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변경할만한 최상의 도서기호법을 발견할 수 없고, 관례상 변경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도서기호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체 장서를 소급정리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장서와의 배열 문제가 발생하며,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며, 심지어 도서분류법까지 변경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감수할 만한 도서기호법이 없으며,

도서관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관례상 도서기호법의 변경이 힘들다는 것으로 보인다.

5.4 도서기호법의 사용상의 문제점

도서기호법을 사용하면서의 문제점은 <표 14>와 같다.

<표 14> 도서기호법 사용에서 문제점

사용상의 문제점	관종별	대 학		공 공		특 수		학 교		합 계	
	장서별 관수	동	양	동	양	동	양	동	양	동	양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관종별·장서별 기호법 통일	관 수	1	1	2		6	1	7		16	2
기본 기호의 대상어 선정	관 수	1		2		1				4	
기존 도서기호법 개선	관 수	4		1		2				7	
도서관 전산화에 용이	관 수	1								1	
도서기호의 폭 넓은 전개	관 수	1				2				3	
도서기호법에 관한 규정	관 수	1								1	
발행연도와 자료형태 구분	관 수	2	1	1		1				4	1
부차적기호의 공통 규정	관 수	2	1	2		2				6	1
기호법 사용의 간편성	관 수	1								1	
이용자에게 편리	관 수	2								2	
저자명을 그대로 채용	관 수	1				1				2	
청구기호의 중복	관 수	3		4		4				11	1
합 계	관 수	20	4	12		19	1	7		58	5

<표 14>에서 도서기호법을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동서에서 주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관종별로 도서기호법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 동서 58개관 중에서 16개관(27.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구기호의 중복 11개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을 개선하는 것 7개관, 부차적기호 사용에 관한

공통 규정의 필요성 6개관, 기본기호의 대상어 선정 4개관, 발행년도와 자료형태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것 4개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종별로는 대학도서관은 기존도서기호법을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4개관과 청구기호의 중복이 3개관, 발행연도와 자료형태별로 구분이 가능해야 하고 부차적기호에 관한 공통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청구기호의 중복 4개관, 관종별 또는 동서와 양서용의 도서기호법의 통일, 기본기호의 대상어 선정, 부차적기호 공통규정의 필요성 등으로 나타났다으며, 특수·전문 도서관은 특성에 알맞는 기호법의 통일이 6개관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구기호의 중복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의 특성에 알맞는 도서기호법으로 통일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도서기호법은 동일한 분류번호를 가지고 있는 도서를 각개별로 개별화함으로써 주어진 분류번호내에서 도서의 정확한 위치를 고정하고, 쉽고 정확하게 서가에 배열하고, 도서의 기록의 요소로서 대출 반납에 도움을 주고, 서가목록이 있다면 도서관 자료의 장서점검과 목록카드기입의 배열에 유용하고, 동일한 분류번호내에서 동일한 저자의 모든 저서, 그의 여러 판, 서가상에 관련된 자료, 한 인물 또는 단체에 의한/관한 모든 저서를 함께 모으고, 도서기호가 연대순으로 다양한 번호라면 특정 주제의 사적인 발달을 묘사하고, 그밖에 소설이나 전기와 같은 분류내에서 도서를 논리적으로 서가상에 배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에 관해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1 조사·분석 결과

1.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은 우선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제1표에서 제8표까지를 비롯하여 동서용으로 8종, 양서용으로 9종과

기타 11종이 사용되고 있다.

2. 동서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리제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이며, 학교도서관의 73.5%, 공공도서관의 70.3%, 특수·전문 도서관의 66.7%, 대학도서관의 62.8%로 총 323개관(67.4%)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68개관(14.2%),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 15개관(3.1%), 수입순도서기호법 13개관(2.7%),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 9개관(1.9%), 「새연대순도서기호법」 3개관, LC 저자기호법 2개관, 그리고 고재창 저자기호법이 1개관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양서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이며, 대학도서관의 84.1%, 특수·전문 도서관의 51.6%, 공공도서관의 38.6%로 총 254개관(53.0%)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학교도서관의 17.2%가 사용하고 있는 리제철 「한글순도서기호법」 40개관(8.4%), LC 저자기호법 22개관(4.6%), 「Cutter 원표」 21개관(4.4%), 수입순 도서기호법 9개관(1.9%),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8개관(1.7%), 리제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 3개관, 그리고 고재창 저자기호법과 메릴 저자기호법이 각각 1개관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4. 리제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은 동서용으로 제1표에서 8표까지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제2표가 160개관(49.5%)으로 가장 많고, 제5표가 106개관(32.8%)에서 사용되고 있고, 관종별로 보면 특수도서관에서는 제5표가 28개관(45.2%)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2표가 24개관(38.7%)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대학도서관 59개관(57.3%), 공공도서관 50개관(45.0%), 학교도서관 27개관(57.4%)에서는 제2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양서용으로는 제6표와 제7표를 제외하고 모두가 사용되고 있으며, 양서용으로도 제2표가 21개관으로 가장 많고, 제5표가 12개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5. 도서기호법을 도중에 변경한 도서관은 동서에서는 67개관(14.1%)이고, 양서에서는 46개관(9.6%)이며, 관종별로는 대학도서관은 동서 28개관(17.1%)과 양서 24개관(14.6%), 공공도서관은 동서 17개관(10.8%)과 양서 6개관(3.8%), 특수·전문 도서관은 동서 13개관(14%)과 양서 11개관(11.8%), 학교도서관은 동서 9개관(14.5%)과 양서 5개관(7.8%)에서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경험이 있다.
6.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도서관은 동서는 92개관(19.2%), 양서는 42개관(8.9%)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의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도서관수와

비교해볼 때 동서는 67개관에서 24개관이 증가한 91개관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도서관 32개관과 공공도서관 27개관과 특수·전문 도서관 24개관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양서는 학교도서관 15개관에서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반면에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도서관은 3개관으로 격감하여 전체적으로 2개관이 감소하였다.

7. 도서기호법을 변경할 의향이 도서관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도서기호법으로 제시된 것은 모두 12종으로 동서는 68개관 중에서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이 17개관(24.6%)으로 가장 많고,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여기서는 제2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한글순도서기호법」 각각의 제표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모두 27개관으로 가장 많다.) 9개관, 제5표 9개관, 제8표 8개관, 「수입순도서기호법」 8개관, 엘로드식저자기호법 5개관,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 2개관, 그리고 고재창 저자기호법과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제1표와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가 각각 1개관 씩이다.
양서는 36개관 중에서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가 12개관(32.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LC 저자기호법 8개관,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이 5개관, 수입순도서기호법 4개관, 그리고 고재창 저자기호법과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제1표, 제2표, 제5표와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 「Cutter 원표」, 메릴연대순, 량가 나단연대순 도서기호법이 각각 1개관 씩이다.
8.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67개관 중에서 동서 53개관(79.1%)과 양서 24개관(52.2%)이 기존장서와 혼합하여 배열하고, 다음으로 동서 7개관(10.5%)과 양서 16개관(34.8%)는 전체 장서를 소급정리하여 서가상에 재배열하고 있으며, 동서에서 6개관(9.0%)과 양서에서 4개관(8.7%)만이 순수하게 별도배열하고 있다.
9. 기존장서를 정리하는 방법은 동서는 36개관(53.7%)에서 새로운 도서기호법을 사용하기로 한 시점부터 변경된 도서기호를 매기고 있으며, 29개관(43.3%)에서 전체 장서를 소급하여 정리하고 있다. 양서는 전체 장서를 소급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46개관 중에서 25개관(54.4)이며, 도서기호를 변경한 시점부터 새로운 기호를 적용하는 방법은 19개관(41.3%)이다.
10.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이유는 동서는 (1) 청구기호의 중복, (2) 도서기호법 자체 문제, (3) 도서분류법의 변경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양서는 (1) 도서분류법의 변경이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으며, (2) 전문사서의 진출입, (3) 도서

기호법 자체문제, (4) 청구기호의 중복, (5) 도서관 업무개선의 일환으로 도서관기호법을 변경하였다.

도서관기호법에 관한 문제만을 보면 (1) 전개항목의 부족으로 인한 청구기호의 중복 방지, (2) 도서관기호를 매기는 것이 간편한 도서관기호법으로 변경, (3) 동일주제에서 동일저자의 저작을 유취, (4) 최신 자료를 구분, (5) 학문의 발달과정을 추이할 수 있는 도서관기호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도서관기호법을 변경하였으며, 도서관기호법 자체 문제와 효율적인 장서관리에는 위의 모든 문제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11. 도서관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로는 동서는 (1) 청구기호의 중복이 가장 많고, (2) 도서관기호법 자체 문제, (3) 서가배열의 통일, (4) 도서관전산화, (5) 이용자의 편리, (6) 동일주제에서 동일저자의 저작 유취, (7) 최신 자료를 구분하는 것 등이며, 양서는 (1) 청구기호의 중복과, (2) 도서관전산화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즉, 도서관기호법을 변경한 이유와는 달리 (1) 도서관기호법의 구조상에서 기본기호의 대상어와 부차적기호의 규정에 관한 것, (2) 도서관기호법의 역할에서 청구기호의 중복 방지, 동일 주제하에 동일 저자의 저작 유취, 서가배열의 통일, 최신 자료를 구분하는 것, (3) 도서관기호법 자체에서 도서매김이 간편할 것, 동서와 양서 기호법의 통일, 도서관 전산화에 적합할 것, 이용하기 편리할 것, 타도서관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 등의 이유로 도서관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한다.

12. 도서관기호법을 변경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1) 도서관기호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체 장서를 소급정리 해야 하고, (2) 전체 장서를 소급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은 부족하고, (3)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장서와의 배열 문제가 발생하며, (4)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5) 심지어 도서분류법까지 변경해야 하고, (6) 이러한 문제점을 감수할 만한 도서관기호법이 없으며, (7) 도서관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관례상 도서관기호법의 변경이 힘들다는 것으로 보인다.

13. 도서관기호법을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동서에서 주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로 (1) 관종별로 도서관기호법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많고, (2) 청구기호의 중복, (3)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기호법의 개선, (3) 부차적기호 사용에 관한 공통 규정의 필요성, (4) 기본기호의 대상어 선정, (5) 동일 분류번호하에서 발행년도와 자료형태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6.2 조사·분석의 결과에 대한 소견

지금까지의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최종적으로 도서기호법은 (1) 기본기호의 대상어 선정이 분명하고 용이하며, (2) 부차적기호는 통일되고 표현과 전개가 충분해야 하고, (3) 도서기호를 매기는 것이 간편하고, (4) 서가상의 배열을 용이하게 하고, (5)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6) 동일주제하에서 동일저자의 저작을 유취할 수 있고, (7) 최신 자료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고, (8) 자료형태별로 구분할 수 있고, (9) 학문의 발전과정을 추이할 수 있고, (10) 도서관 전산화에 적합하고, (11) 서가목록을 참조하지 않고도 청구기호의 중복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써 관중과 도서관의 특성과 동서·양서용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의 도서기호법으로 이러한 모든 기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융통성있게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만족은 이를 수 있으며, 이에 합당한 도서기호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사용현황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각종 도서기호법에 관한 비교 분석은 차후에 좀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1.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종류와 그 사용방법에 관해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도서기호법은 외국의 도서기호법에 못지 않게 충분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찬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그 종류와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불충분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기호법의 특성을 잘 알리고 관중별로 또는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호도가 높은 몇종의 도서기호법을 추천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하며, 도서기호법의 다양한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서기호법 중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몇개의 기호를 선별해서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2. 많은 도서관에서 청구기호에 중복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도서기호의 주된 역할인 각개의 도서를 개별화하는데 위배되고 있다. 청구기호의 중복의 해결은 도서기호표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서가목록을 일일이 참조하여 청구기호를 부여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다. 때문에 청구기호의 중복을 방지하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을 최대한으로 전개하여 활용하고, 서가목록

을 일일이 참조하여 중복을 피해서 도서기호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서가목록을 대조하는 일은 컴퓨터의 출현으로 도서관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탁상머리에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복이 일어나면 자관의 사정에 알맞는 세부적인 전개규칙을 보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는 가능하다면 폭넓은 전개를 할 수 있고 부차적기호의 사용이 자유로운 도서기호법을 채택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개가제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는 서가상에서 도서를 항상 청구기호순으로 배열하여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출시에 청구기호만을 사용하지 않고 서명과 저자를 함께 사용한다면 완벽하게 청구기호의 중복을 방지하지 못하더라도 이용상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가상에 도서를 배열할 때나 도서를 검색할 때 또는 장서점검시에 조금 더 세밀하게 용의주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 대학도서관에서는 청구기호의 유일성을 무시함으로써, 즉 그 중복성을 인정함으로써 중복 문제를 해결한 곳도 있다.

3. 기본기호의 대상어 선정에 관한 문제는 목록규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본기입에서 표목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기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저자명 기본기입일 경우에는 저자명이 기본기호의 대상어가 되고, 서명 기본기입일 때는 서명이 그 대상어가 된다. 따라서 목록규칙을 충분히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4. 부차적기호는 각종의 도서기호법마다 세부적이고 항목간에 차이는 있지만 부차적기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대개 저자명순도서기호법과 연대순도서기호법마다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금 더 폭넓은 전개를 위해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거나 장래에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도서기호법의 부차적기호를 증점적으로 보완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5.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경우에 기존장서의 정리와 서가상의 배열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실제 조사에서 동서용은 전체장서의 소급정리 비율은 43.3%로 조금 낮고 서가상에 혼합배열하는 비율은 79.1%로 매우 높고 별도배열은 9.0%만이 별도배열하고 있다. 양서용은 소급정리 비율은 54.4%로 조금 높고 서가상에 혼합배열하는 비율은 52.2%이고 별도배열은 8.7%뿐이며 나머지 34.8%가 기타방법으로써 전체장서를 소급정리하여 재배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출판물이 범람하고 이용자들은 최신 자료를 선호하고 문헌의 도태속도가 빨라지며 서가의 공간문제가 대두되고 별무이용도서나 제적도서

가 많아지는 시대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경비를 들여 기존장서를 소급정리하여 혼합배열하기 보다는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기로 한 시점을 경계로 하여 신구도서를 확연히 구분함으로써 별무이용도서나 폐기도서를 식별하는데 용이하도록 이전 자료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도서기호법을 적용하기로 한 시점부터 새로운 도서기호를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신구도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따라서 자모순 도서기호법(저자기호법)을 연대순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신구도서의 구분이 확연해져서 기존장서에 대한 소급변경의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된 구도서는 보존서고에 별도로 보존하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동일 서고공간내에서 별도공간을 할당하고 밀집서가를 이용하여 별도배열함으로써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학문의 특성에 따라 별무이용도서 또는 폐기대상도서로 구분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 도서기호의 표현이 풍부하고 충분히 전개할 수 있으면 도서기호 매김이 복잡해지고 이용자들은 복잡한 도서기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고 서가배열 또한 더욱 힘들어지는 반면에 청구기호의 중복은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기호 매김이 간편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서가배열이 용이해지면 청구기호의 중복문제가 남게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합성식 도서기호법에 비해 열거식 도서기호법은 표를 일일이 들추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동일 주제하에 동일저자의 저작을 유취하려면 저자명순도서기호법이 적합하고 발행년도에 따른 학문의 발전과정을 추이하거나 최신 도서를 구분지으려면 연대순도서기호법이 적합할 것이다. 다소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수입순도서기호법은 도서기호 매김이 간편하고 청구기호의 중복을 거의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 전산화와 더불어 동일 주제 아래 동일 저자의 저작을 한곳에 모은다는 것과 개가제시스템에서 청구기호의 중복을 완벽하게 방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범람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용가치면에서 문헌의 도태속도가 빨라지고 동일한 주제의 학문의 발달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서가의 공간문제가 크게 대두된 시대에서는 새 자료와 묵은 자료를 확연히 구분지어주며, 기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서가공간을 조정해 주는 연대순 기호법이 어느 도서기호법보다도 현시대에 맞으며,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현재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이며, 도서관 전산화에 따라 목록 또한 새로운 형태로 구성되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사실 도서기호법만을 변경하기에는 우리의 도서관 실정은 <표 13>에서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와 개혁의 시점에서 도서관 전산화와 병행하여 도서기호법의 변경에 관해서 고려해봄직하며 도서기호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 거기에 합당하는 것을 채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론상으로 저자명순도서기호법과 연대순도서기호법과 수입순도서기호법을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도서기호법의 여러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창. 1954. 韓銀圖書分類法 서울 : 韓國銀行調查部.
- 국립중앙도서관 편. 1986.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저자기호표(수정·보안판).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 김남석. 1988. 圖書記號. 大邱 : 啓明大學校 出版部.
- 리재철. 1958a. “동서 저자기호법의 연구.” 도협월보, 7.8호:2-26.
- 리재철. 1958b. 동서 저자 기호표 및 그 사용규정.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 리재철. 1970.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의 연구.” 圖書館學, 1집:1-57.
- 리재철. 1973. 東西著者記號表 및 그 사용법 해설. 제2판. 서울 : 아세아문화사.
- 리재철. 1972. “東西著者記號表의 특징과 그의 새 사용법에 대하여.” 도협월보, 13권 2호:50-57/ 13권 3호:79-88.
- 리재철. 1982. 한글순 도서기호법. 서울 : 아세아문화사.
- 리재철. 1985.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연구.” 圖書館學, 12집:7-37.
- 리재철. 1986.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 서울 : 아세아문화사.
- 박준식. 1992.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에 관한 분석적 고찰.” 圖書館學, 23집:33-62.
- 박준식. 1993. 英美著者記號法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 대학원.
- 박준식, 김남석. 1994a. “저자기호법의 발전과정(1).” 도서관, 49권 1호:3-21.
- 박준식, 김남석. 1994b. “저자기호법의 발전과정(2).” 도서관, 49권 2호:3-22.
- 이창수. 1986. “한국도서기호의 발전과정 분석.” 계명연구논총, 4:199-220.
- 이춘희. 1960. 東書著者記號表. 서울 : 成均館大學校 圖書館.
- 장일세. 1961. 韓國人著者記號表.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 장일세. 1964. 東洋書著者記號表. 서울 : 新書閣.
- 정필모. 1974. 韓國文獻記號表. 서울 : 중앙대학교도서관학회.
- 홍옥자. 1977. 한국 도서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분류법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Barden, B. R. 1937. Book Numbers : A Manual for Students with a Basic Code of

- Rules, Chicago : ALA.
- Comaromi, J. P. 1981. Book Number : A Historical Study and Practical Guide to their Use. Littleton, Colo. : Libraries Unlimited.
- Cutter, Charles Ammi. 1969. Cutter's Alphabetic-Order Table. Chicopee : H. R. Hunting Co.
- Cutter, Charles Ammi. 1969. 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 Table. Swanson - Swift revision, Chicopee : H. R. Hunting Co.
- Elrod, J McRee. 1958. "The Arrangement of Printed Materials in a Library." 人文科學, 제2집, 161-179.
- Merrill, W. S. 1912. "The Merrill Book Numbers." Public Libraries, 17:127-129.
- Ranganathan, S. R. 196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London : Asia Pub. House.
- Satiya, Mohinde Partap. 1990. "Book Number and Call Number." In: ELIS, vol. 45, New York : Marcel Dekker: 18-45.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 Book Numbers Used in Korean Libraries

Yang-Sook Lee*

This study is to survey the present book numbers used in Korean libraries, to analyze their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 in the book numbers.

As the results of the survey several suggestions are derived as follows.

1. The education to the librarians about the kinds and the application methods of the book numbers used in Korean libraries should be sufficiently offered.
2. The present book numbers used should be expanded in detail for avoiding the duplication of the call numbers. Also when book numbers are assigned, shelf list cards should be examined one by one not to give the same number. If the book numbers are overlapped in the state not to expand further, libraries should establish a detailed expansion rul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situation and maintain it consistently. However, it is impossible for libraries operating open stack systems to arrange books on the shelves in call number sequence, therefore libraries can solve the problems as they accept duplication cases.
3. Since the object word of main mark is a heading in main entry, we must apply cataloging rules to it closely.

* Graduate student, Dept. of Lib. & Info. Sci., Yonsei University

4. For expanding book numbers widely it is desirable that the subsidiary mark of the book numbers which is the most prevalent in general and will be the most preferable in the future through the survey should be added and be provided.
5. The book numbers used being changed, we are to assign new book number leaving former materials as they are at the point of adopting a new book number. So aged materials are stored in a repository or on a compact shelf in the stack, will be discarded or weeded according to subjects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6. With library automation bringing together all the books of an author in a particular subject or in a particular form and avoiding completely duplication in open stack systems are meaningless. Rather than chronological book numbers, distinguishing clearly new materials from aged materials and controlling the stack spaces mechanically and effectively, can be regarded as the most modern and future-oriented of all the book numbers.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서

(1) 귀 도서관의 장서량은 얼마나 됩니까?

동 서 : _____ 권. 양 서 : _____ 권.

(2) 귀 도서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은 어느 것입니까?

아래에 열거한 것중에서 골라 해당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동 서 : _____ 양 서 : _____

1. 수입순 기호법
2. 고재창 한국저자기호표
3.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3의 리재철표를 채용할 경우는 아래 제표 중
에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예: 제5표를 사용할 경우 '3.5' 라고)

3.1 제1표	3.5 제5표
3.2 제2표	3.6 제6표
3.3 제3표	3.7 제7표
3.4 제4표	3.8 제8표
4.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
5.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6.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
7. Cutter 원표
8. Cutter-Sanborn 저자기호법
9. LC 저자기호법
10. Merrill 저자기호법
11. Olion 저자기호법
12.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
13. Biscoe 연대기호법
14. Brown 연대기호법
15. Merrill 연대기호법
16. Ranganathan 연대기호법
17. 기타

주의: 17번 기타의 경우는 위의 빈칸에 '17'이라는 번호와 함께 그 구체적인 도서 기호법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만약에 도서기호법의 특정한 이름이 없다면 그 도서기호의 구조와 매기는 방법을 적어 주십시오.

(3) 귀 도서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은 언제부터 채택하십니까?

동 서 : 설립당시인 _____ 년부터

도 중 인 _____ 년부터

양 서 : 설립당시인 _____ 년부터

도 중 인 _____ 년부터

(4) 귀 도서관은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도서기호법을 바꾼 일이 있습니까?

있 다 ()

없 다 ()

(5) 귀 도서관에서 도서기호법을 바꾸신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 서 :

양 서 :

(6) 귀 도서관에서 도서기호법을 바꾸신 적이 있다면 기존의 도서기호가 적용된 장서의 서가상의 배열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 기존의 장서와는 별도로 배열하였다. ()

(나) 기존의 장서와 혼합하여 배열하였다. ()

- (11) 만일 도서기호법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것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앞의 (2) 번의 물음을 참조하여 그 번호를 주셔도 됩니다)

동 서 : _____ 기호법

양 서 : _____ 기호법

- (12) 그밖의 도서기호법에 관해 특별한 견해가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